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는 신농(神農)씨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삼라만상의 온갖 식물을 직접 먹어보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였다 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0여번을 식중독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끝내는 독초를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신농씨의 설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이 이와 같이 수많은 선각자들이 목숨을 걸고 알아낸 치열한 생존 노력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밀은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문명, 아테네, 로마문명으로 이어지는 서양의 1만년의 문명을 키워온 원동력이 되는 작물입니다. 아시아의 쌀과 함께 세계 7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식량자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밀을 몇 마리의 쥐를 키워보고 이상하다고 떠벌리거나 1000명중에 2~3명꼴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현상을 가지고 밀을 못 먹을 음식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

가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확대 재생산 하는 언론이나 이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여 글루텐 프리 제품을 선전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고 신농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음식의 고마움을 모르고 무례하게 장난질 치는 우리사회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영화 <인티스텔라>에서 보여주는 종말적인 재앙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 책은 최근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한 밀가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입니다. 이런 책을 써야할 이유가 없는 일을 가지고 책을 써야하는 저자들의 고뇌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된 셀리악병의 공포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잘못 전달된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와 같이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매우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식품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고 흥밋거리로 다루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바른 자세, 경외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